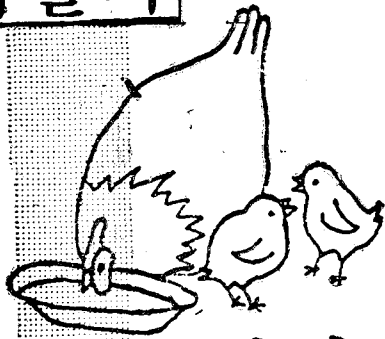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쌓였던 얼음과 눈이 녹아 시냇물을 이루고 자취를 감추었던 온갖 철새들이 봄의 화신과 함께 전원에 찾아드는 생동과 의욕으로 가득한 계절이다. 환경적인 악조건으로 인한 경영상, 관리상, 신체상의 위축도 완전 해소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양제업계의 미해결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과거 불경기 파동의 불명예가 다시는 오지않게 모두가 노력하자.

1. 육추

산란능력은 유전적인 소질이 30%이며 환경적인 요인이 70%라고 한다. 이상에서 환경위생학적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드시 아무리 우수한 품종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관리면에서의 결함이 있을시는 많은 손실을 보게되고 만다.

이점은 성계에서 보다 초생추시의 관리가 더욱 문제시 되겠다. 특히 하나의 개체가 생물로서 완전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날자가 부화 5일후인데 4일간은 인위적인 온갖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보호육성하여야 된다. 이기간에 습도부족시는 식체, 백색하리, 난황소화불량 등이 오는 수가 많으니 온도 환기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습도부여에도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육추시기문제는 전말에도 지적했드시 일년 중 난가가 가장 비싼 7~12월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산란일수<초산>

를 150~160일로 잡아 3월초순부터 부화와 육추의 봄이 조성되지 않을까? 육추기간중에는 일반적으로 곡류 58~70% 강류 3~10%, 동물성 단백질 10~15%, 식물성 단백질 10~18%, 무기성분 3~4% 기타 영양제와 항병첨가제를 미량 혼합하고 있다. 입추전의 소독은 육추사내의 거미줄, 먼지, 계분, 기타 오물등을 깨끗이 쓴 후에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밀폐한다. 이어서 살균소독제로 콜고루 분무하거나 호르마린 혼중소독을 사용하는데 사용법은 29~35°C와 67~70% 상관습도하에서 100입방척당 17.5g의 과망간산칼리에다 35cc의 호르마린을 적용한다. 시판 소독제로는 로세논, 스파, 벤젝스, 저맥스, 가금졸, 단졸, 크레졸, 파스텐, 양젖물 등이 있는데 당시조건에 따라 적당한 약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카니발리듬에 대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은데 혹자는 카텐<붉은비니루도 가능>을 치므로써 실내를 어둡게하여 사육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육추기간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질병이므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겠다. 참고로 질병을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세균성질병

추백리, 전염성코라이자, 닭티브스, CRD

② 바이러스성질병

뉴켓슬, 마렙병, 계두, 조너척수염, 전염성 기관지염과 후두기관지염.

③ 곰팡이성질병

아스퍼질로시스

④ 원생동물로 인한 질병

룩시딕, 흑두병, 류코싸이토준, 회충류.

⑤ 일반질병

중독증, 각약증, 페르시스 등이

3월

정 보 남
<한국가금협회 점정소>

있는데 이외에도 영양장에서의 생리 작용으로 인한 것과 환경조건 불량과 관리부족에서 오는 질병 등 방역과 환경위생에 주의하자. 일반적으로 사육시 평사와 바터리가 사용되는데 대규모이나 소규모이나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지를 문제라 하겠다.

2. 부로일러의 생산과 판매

초창기였던 6~7년전보다 관리나 기술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유통소비로의 개척과 생산량의 불균형으로 불경기에 시달리는 때가 많은 것 같다. 복날, 소풍시즌, 명절때는 협정가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가격의 앙등으로 호경기를 보이다가도 무계획한 과잉생산의 결과는 많은 출혈을 해가며 덩핑으로 출하를 하는 최악의 경우에 당황하게 된다. 이런 결과는 당국의 시책과 업계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계획생산을 하고 보다 넓은 판매망의 확보로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산란계 관리

완연한 봄날씨가 가하면 비, 바람, 진눈깨비, 14°C 내외의 일교차 등의 불청객이 괴롭히므로 각종 스트레스 제거는 물론 각종 영양분의 공급과 정기적인 백신접종 및 구충실시로 체계의 건강관리에 주의하자.

취소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집란을 자주하고, 밀사를 피하고, 통풍환기에 유의하며, 계사의 상승온도를 억제해야 된다. 더우기 초생추의 우는 소리나 초생추를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취소계의 발견시는 격리후 2~3일간 급수만 허락하고 절식을 시킨다. 계분의 누적은 암모니아가스로 인한 시각장애

가 산란저하를 초래하므로 수시로 계분청소를 실시할 것이며 부리나 벼슬 자르기는 부화장에 초생추 구입시 의뢰하거나 4~6주 또는 10~12주경에 실시하고 2~3일간 비타민 제제를 투여한다. 난중의 미달시는 유지량을 1~2% 첨가하고 산란 6개월시는 2~3%의 패분을 급여한다. 계사내의 과습은 하리, 생산량감소, 사료부패, 호흡기발생요인이 되므로 밀사, 환기불량, 바닥누습, 실내저온, 자릿깃부족 등 제조건을 해결해야 된다. 백신접종 2~3주간의 영양과 건강관리불량은 면역형성의 약화, 각종세균의 침입으로 폐계가 속출하니 접종후도 항생제와 영양제를 투여시킨다.

4. 위생관념의 철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미생물들은 항상 우리주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때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위생관념은 농장입구에서 계사구석구석까지 영향이 미쳐야 된다. 급수기의 물에는 항상 사료찌꺼기, 깃털, 계분, 기타 오염물질이 들게되므로 청결수 또는 음수소독제를 복용시켜 장내세균을 세척시켜 주므로써 식중독으로부터 체체를 보호할 수 있다.

병계나 사계는 반드시 매카 또는 소각하며 이를 담았던 지대, 가마니, 마대등도 보관후 판매에 앞서 완전소각하는 습성을 키우자. 더우기 병계, 사계를 비공식적으로 판매함을 시정하므로써 국민보건생활에 기여하자. 병계, 사계의 매물시도 개, 고양이, 쥐, 사람의 침입을 막도록 노력하여야겠다. 그리고 농장내의 외부인사 출입금지, 잘 지켜지지만 자체 내에서 즉 종계장에서 부화장으로 부화장에서 종계장으로 밤에 놀러다

니는 것과 외출복으로 금지지역을 드나드는 것은 더욱 시정되어야 하겠다. 일었던 계사앞의 소독판과 하수구, 운동장소독과 농장내외의 대청소는 어떤가 확인하자, 그리고 종계장에선 반드시 추백리검정을 할 것이며 내외부기생충구제, 콕시듐예방제 급여, 악벽방지, 각종백신의 적기접종 등 방역계획을 세워서 점차 활기를 떨 각종 미생물들로부터 체체를 보호해야 한다.

5. 인력관리

경영상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사육상의 기술이나 품종의 우수성 보다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관리자라고 본다. 지위여하를 따지기전에 그사람의 적성과 인격능력을 경영자 자신이 파악하여 그사람의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조건을 부여시켜야 한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위치에서는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업체의 번영은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자 자신이 어느 특정인물을 선택해서 책임을 부여한 후에는 그 권한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시켜서는 안된다. 일단 선택된 자에게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의 주관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부여시켜야 될 것이다. 간혹 실수가 있을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일단 심사숙고한 후에 시정책을 마련함도 좋을 것이다.

경영자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종업원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감정을 떠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므로써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모든 난점은 자연 해소될 것이며 사업도 번영을 기할 수가 있는 즉 신용과 믿음을 본바탕으로 굳게 뭉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나. □□